

ASK 2018 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서밋

29~3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 시장 전망·투자 전략 논의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운용전문가들이 모여 대체투자 분야의 성공 기회를 모색하는 'ASK 2018 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서밋'이 오는 29~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체투자 전문 포럼답게 글로벌 자본시장 거물들이 총출동해 '긴축시대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운용전문가들이 모여 대체투자 분야의 성공 기회를 모색하는 'ASK 2018 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서밋'이 오는 29~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체투자 전문 포럼답게 글로벌 자본시장 거물들이 총출동해 '긴축시대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3.9%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연실업률로 여겨지는 5%를 밑도는 수치다. 강(強)달러가 지속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마치고 긴축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견조한 미국 경제를 필두로 글로벌 경기가 '올드락스' 국면을 맞고 있다는 진단이나 오는 반면 30여년 만에 금리가 대체 상승기로 접어드는 '뉴노멀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투자자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금리가 줄줄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에 돈을 넣기 쉽지 않아져서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끌던 추가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대체투자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투자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금리 인상에 유망한 대체투자 상품을 조명한다.

사모대출·사모주식을 주제로 열리는 첫날 M&G인베스트먼트, 티캐하우 캐피탈 등이 소개하는 유럽 뱅크론·직접대출이 대표적이다.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금리)를 받는 단기대출 상품으로 금리에 연동되는 데다 상당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매력 있어 각광받고 있다.

수년간 국내 기관투자들이 투자한 미국·유럽 사모대출펀드(PDF)는 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으로 대출 대상을 넓히고 있다. 알렉스 슈미트 ESO캐피탈 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와 프랑수아 라코스테 아이디인베스트

파트너스 파트너스 등이 유럽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모대출채권 투자를 집중 조명한다. 론 라워드 서버리스 전무, 존 폭스 바르데파트너스파트너스 등 글로벌 부실채권(NPL) 투자 전문가들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 신용 사이클에 맞는 투자 기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해밀턴레인이 발표하는 '임팩트 투자'도 관심을 끈다. 임팩트 투자란 투자 수익과 함께 환경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활동이다.

둘째날에는 투자 자산 다변화를 통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멀티에셋 전략이 집중적으로 제시된다. 수일 카파디 아 웰링턴매니지먼트 전무가 '글로벌 금

변동에 대비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설명한다. ILS어드바이저스, 리덴홀캐피탈 파트너스는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의 상관도가 낮은 보험연계증권(ILS)을 안내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퀀트 헤지펀드와 머신·딥러닝을 활용한 이색 투자도 소개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는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우정사업본부 등 한국 자본시장을 이끄는 '3대 큰손'의 수장 및 투자 책임자가 모두 기조연설에 나선다. 첫날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최희남 KIC 사장, 둘째날은 신현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이 대체투자 전략을 전한다.

김대훈/유창재 기자 daepun@hankyung.com

“EU 당면 과제는 유로화의 세계화”

» A1면 '프랑수아 피용'에서 계속

피용 전 총리는 유럽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이익뿐 아니라 점점 더 다극화되고 위협적인 세계에서 유럽이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 서로도 통합된 유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의 영향력 쇠퇴와 중국의 부상, 중동 국가들 간 갈등 등으로 세계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이 같은 무질서 사례로 꼽았다.

EU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도전 과제도 안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수많은 과제를 유럽 국가들이 분열된 채 극복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피용 전 총리는 "유로화의 세계화가 유럽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앞세워 자국의 행정력을 전세계 다른 국가들에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두려워하는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EU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그는 "유럽 기업들은 국제 무역을 위한 '진짜 국제 회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EU 내 세제통합 같은 개혁을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피용 전 총리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1957년 로마협정 이후 이어진 유럽 통합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유럽에 필요한 개혁들을 촉진시키고 유럽인들을 변화시킬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창재 기자 yooocool@hankyung.com

사모대출·사모주식(29일)

유럽 뱅크론	M&G인베스트먼트
사모대출 투자환경	구겐하임파트너스
부실자산 투자전략	바르데파트너스
유럽 직접대출	티캐하우캐피탈
유럽 중소·중견기업 사모대출	아이디인베스트파트너스
디지털 사모대출	콜치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중국 신용상품	소아베스트 캐피탈파트너스
성장주식 투자	서밋파트너스
유럽 중소·중견기업 특수금융	ESO캐피탈파트너스
복합 사모대출	캐피탈포매니지먼트
사모대출의 프리미엄	스텝스그룹
미국 사모대출	스타마운틴캐피탈
유럽 사모주식	BMO글로벌에셋 매니지먼트
사회책임투자	해밀턴레인
유럽 부실채권	서버리스

헤지펀드·멀티에셋(30일)

보험연계증권	ILS어드바이저스
조건부채권	올드유추업 글로벌인베스터스
아시아 헤지펀드	스텝스그룹
유럽 부실채권	서버리스
알파 수익률 추구 전략	멘그룹
대체채권	리덴홀캐피탈파트너스
기회추구형 신용투자	GCM그로브너
자산배분 전략	투시그마
멀티에셋투자 전략	베일리지포드오버시스
자산배분 전략	웰링턴매니지먼트
글로벌 멀티팩터 및 ESG투자	노던트러스트 에셋매니지먼트
멀티에셋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SE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기반의 멀티에셋 투자	에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
신용채권	아메리칸센추리 인베스트먼트

한반도 '외교 이벤트'에 출렁이는 글로벌 방산株

글로벌 방산주들이 남북한 혹은 마북 정상회담 관련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때마다 해당 국가 증시에서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덩치'(시가총액)가 한국 방산주들의 최대 수심 배에 달하는 '몽퉁'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구도 변화에 일취일부흥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록히드마틴은 7.15달러(2.20%) 하락한 317.13달러로 장을 마쳤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제조 기업으로 유명한 레이시언도 6.22달러(2.91%) 떨어진 207.73달러로 마감했다. 이들의 낙폭은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하락 폭보다 컸다. 이날 다우지수는 178.88포인트(0.72%) 내린 24,834.41로 장을 마쳤다.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영국 방산기업 BAE시스템스도 1.16% 하락했다.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18.28포인트(0.23%) 오른 7877.45로 마감했

美 록히드마틴·영 BAE시스템스 사드 제조업체 레이시언 등 국제정치 구도에 '오르락 내리락'

다. 23일 유가증권시장의 한국항공우주(-2.58%) 한화 에어로스페이스(-0.53%) LIG넥스원(-0.73%)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방산기업을 담당하는 한 애널리스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폭이 유독 컸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중 '마북 정상 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에도 록히드마틴이 2.53% 하락하는 등 전 세계 방산주가 대거 조정을



받았다. 반면 북한이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를 관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날 16일부 터는 완만한 상승 궤적을 그리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각국 증시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글로벌 방산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발표하는 '톱 100 방산기업' 순위에서 매년 상

위권을 지키는 곳들이다. 2017년 순위에서는 록히드마틴(1위) BAE시스템스(3위) 레이시언(4위) 등이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곧 발표될 예정인 올해 순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인 게 방산업계 시각이다.

해와 주요 방산주의 시총은 한국 회사들에 비해 훨씬 크다. 이날 증가 기준 록히드마틴의 시총은 900억달러(약 97조 200억원)로, 한국 방산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4조 2255억원)의 약 23배에 달한다.

최근 수년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 랠리를 펼쳐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도 조정 요인으로 꼽힌다.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은 최근 5년간 각각 2.92배와 3.14배 올랐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런 이유로 22일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7개 종목의 투자 의견을 '중립'로 일제히 낮췄다.

송충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자본규모 유지·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이중 포식' SKT, 4000억 영구채 상환 후 재발행

SK텔레콤이 5년 전 발행한 영구채(신주 자본권) 4000억원어치를 조기 상환하고 같은 조건의 영구채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자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금리 상승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늘릴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7일부터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60년 만기 영구채 4000억원을 차환하기로 했다. 차환은 새 채권을 발행해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발행한 영구채를 갖고, 똑같은 조건으로 새 영구채를 찍을 계획이다. 새로 찍을 영구채도 기존처럼 발행한지 5년 뒤부터 SK텔레콤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아직 발행금리와 금리상승 조건 등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NI투자증권이 채권 발행실무를 맡고 있다.

IB업계에선 SK텔레콤이 글로벌 신용 등급을 지키기 위해 영구채 차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영구채를 조기 상환하면 현재 연 4.21%인 발행금리가 향후 5년 간격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아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기존 영구채를 갖고 같은 조건으로 재발행하기

기업명	금액	상환방식	시기
CJ제일제당	2000	차환	2017년 4월
신세계건설	500	차환	2017년 6월
한국서부발전	1000	상환	2017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	5567	상환	2017년 10월
CJ프레시웨이	260	차환	2018년 5월
포스코	8000	상환	2018년 6월(예비)
SK텔레콤	4000	차환	2018년 6월(예비)

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최근 보안업체 ADT캡스 인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무디스는 지난 10일 ADT캡스 인수 부담을 거론하면서 SK텔레콤의 신용등급(A3) 전망을 '인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기업들의 영구채 조기 상환이 줄어 이으면서 '영구채는 5년 만기 고금리 채권'이라는 인식이 채권시장에서 퍼지고 있다. 영구채는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 발행금리가 높다.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높아지는 조건이 붙는 게 일반적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5월23일 오후 3시50분

국내 기관, 獨 오피스 빌딩 매각으로 '대박'

사학연금·교보생명·현대해상 등 5년여 만에 1400억원 이상 차익

사학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갈릴레오 타워(독일)를 투자 5년여 만에 매각해 14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릴 전망이다.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는 프랑크푸르트 오피스 빌딩에 발빠르게 투자해 큰 수익을 내는 사례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의하면 따르면 독일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IVG는 싱가포르 최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사인 캐피탈랜드에 이 건물을 3억5600만유로(약 453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프랑크푸르트를 지나는 마인강 북부 금융지구에 있는 3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이다.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뱅크가 세 일 앤 드 리스백(매각 후 제임스) 방식으로 2013년 6월 IVG에 2억5000만유로(3100억원)를 받고 팔았다. 당시 사학연금을 비롯한 교보생명, 현대해상, LIG손해보험(현 KB손보), 신한중앙회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한화자산운용이 설정한 국내 펀드를 통해 지분(에쿼티) 투자를 했다.

이번에 IVG 측이 매각에 나서면서 국

내 기관투자자가 큰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 거래는 현재 독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당시 기대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 8%가량이었다. 매각이 완료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연 10%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는 2016년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유럽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런던에서 이곳으로 유럽 본사를 옮기면서, 삼성 SRA자산운용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2016년 8월 이 건물 맞은편에 있는 코메르츠뱅크 타워를 약 9000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코메르츠뱅크의 글로벌 본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5월23일 오후 4시30분

모십니다

‘현금흐름분석 사관학교’

리스크컨설팅코리아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기업금융-리스크 담당자와 기업의 회계·경영기회 담당 임직원, 주식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흐름분석 사관학교'를 내달 1일 엽니다. 현금흐름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실무와 접목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인 한중수 이화여대 교수의 '현금흐름분석과 의사결정', 기업가치평가 전문가인 김중일 가톨릭대 교수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기업가치평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일시: 6월1일(총 8시간) ●장소: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서초교육장(서울 서초1동 서초지웰타워 506호) ●수강료: 70만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수강신청: 홈페이지(www.riskconsulting.co.kr) ●문의: (02)2263-4396, edu@riskconsulting.co.kr